

학생의견 수렴 통한 정책 펼쳐야

본사 설문조사 실시... 당면과제, 등록금 38.32% 교육환경 개선 23.35%



■ 학생회 보궐선거

- ① 설문조사
- ② 후보자 공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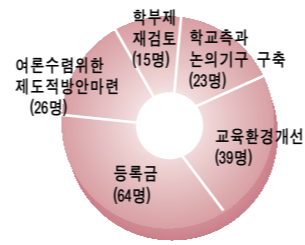
본사 대학부는 지난주 179명(신입생 12명 포함)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3 학생회 보궐선거'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지난해 선거를 평가한 부분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들 중 41.7%가 '선거가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대답해 선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진유인물을 올려 홍보를 강화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35.5%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41.31%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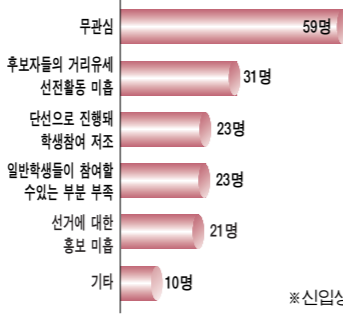
지난해 본교를 비롯한 총 13개 대학이 투표를 미달과 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해 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또한 학생회가 구성된 대학의 경우도 투표율 50%를 겨우 넘기면서 학생회 선거는 이제 투표율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사 대학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학생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2차례의 기획을 통해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입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35대 총학생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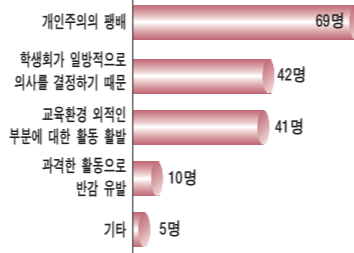
편집자

▶선거가 무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들의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 '학생회의 일반적 의사 결정 (25.14%) 때문'이라고 답해 과학생 등 의의견수렴을 통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선거가 무산된 이유로는 '후보자들의 유세가 부족해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18.56%)', '일반 학생들의 참여 부족'이 13.77%

▶학생회에 대해 학생들이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선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13.77%)'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후보자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50% 이상이 '그저 그렇다'고 답했으며, 차기 총학생회장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68.55%의 학생이 '공약'이라고 답해 후보자들은 공약중심의 선거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거를 진행한 부산외대의 경우 '공약실사제'를 실시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공약으로 등장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했다.

차기 총학생회장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는 38.32%가 '등록금 문제'를 꼽았으며, '학교측과 학생간의 논의기구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13.77%로 나타나 등록금 책정협의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23.35%)',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15.56%)'으로 나타났다.

▶2면으로 이어짐 대학부 dmz@dongguk.edu

불교병원 개원준비 재개

개원준비위, "자금확보 주력할 것" 본교, "컨설팅 통해 적정시기 모색"

이사장과 총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동국학원 재단 산하에 구성된 개원준비위원회(위원장=염배스님, 이하 개원준비위)는 지난달 19일 이사회가 끝난 후 그동안 조사한 △재정 △건설 △추진과정 등에 대한 첫 결과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개원준비위원장 염배스님은 "사업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재원조달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개원준비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원의 경우 한정된 재정운영 원칙을 어겼으며, 장비구입도 절차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가의 무관실 장비 도입 등으로 예산이 추가돼 앞으로 200~3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교병원 개원에 집중할 결과 경주와 포항 등의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가 미약해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염배스님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의 활성화, 종단지원, 의료기기 리스를 확대해 연내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외부 업체와의 컨설팅을 통해 개원을 위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신입 총장이 취임함에 따라 병원 재정을 비롯한 업무보고와 함께 앞으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홍기삼 총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 학교관계자들은 지난 8일 불교병원을 방문해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조만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개원의 적정 시기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불교병원 개원은 학내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비회계와 불교병원 회계 구분'을 약속한 만큼 재원확보 및 사용에 대해 투명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순기 기자 chof55@dongguk.edu



여성의 힘으로 ...

지난 8일 대학로에서 95주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가 진행됐다. 호주제 폐지,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등의 기치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단순한 집회가 아닌 여성들의 '축제의 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총대, 보궐선거시행세칙 개정

"학생들의 선거참여 유도해 투표율 높일 것"

총대의원회(의장=임수욱·화공4)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35대 총학생회, 17대 총여학생회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시행세칙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욱 중선위원장은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요세칙은 <표>와 같다.

<표>

	개정 전	개정 후
유세	소유세 때 미디오를 사용할 수 없다	소형 열풍기를 사용할 수 있다
투표	후보자 공보일 전까지 재학생 명부를 작성 학생회 또는 사인이 이첩된 증명서만 인정	투표 5일 전까지 재학생 명부를 작성 중선위임 입회하여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표	불필요한 포식이 있는 것 무효표 처리	해당조항 삭제

총장·학생회 1차면담

신임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의 1차면담이 내일(11일) 진행됐다.

이번 면담에서는 △등록금 책정협의회 △학부제 재검토 △공간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선임 학자투위원장장은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소통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영문홈페이지 오픈 해외에 본교 알리는 계기

본교 영문홈페이지가 올해 초 개설돼 지난 3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영문홈페이지는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여문광장 등 본교 홈페이지 내용이 영어로 번역돼 있어 해외자매대학을 비롯한 외국대학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dongguk.edu/english/이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보리소

세계 불교계의 상징적 인물로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있고, 베트남 출신 승려 틱낫한이 있다.

틱낫한의 방한과 참여불교

달라이 라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고, 틱낫한은 베트남 전쟁의 무모함을 고발하는 반전평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지만 베트남 정부의 박해로 결국 좌절된다. 두 스님은 불교계만이 아닌 전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승려이자 시인이요 평화운동가인 틱낫한이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한다.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20여 일에 걸쳐 생명과 환경과 평화에 대한 포럼을 비롯해 명상체험과 강연회 등 각종 행사를 갖는다고 하니 사뭇 기대가 크다.

틱낫한은 일찍이 기복(新福)과 내세론(來世論)에 의지한 기존 불교의 빚장을 열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참여불교'를 주창한 인물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휴과 사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곳'을 만들어 가는 명상수련

센터 '플럼빌리지(Plumvillage)'를 세워 종교간 벽을 허물며 종교의 실천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오고 있다.

틱낫한의 참여불교론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불교 현실에서도 지극히 유효하다.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회의 병폐에 눈감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그의 지론이 크나큰 경쾌으로 다가서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무릇 위정자들만의 무대였던 한국정치에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기치로 출범한 노무현 정권

의 '참여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그의 발자취를 따라 미국중심 패권주의에 대한 반전평화운동과 상생화합사상의 실천적 모습을 몸소 느껴봄도 소중한 경험일 듯 싶다. 때마침 방한기간 중인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은 동국대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니 세계적 스승의 면모를 접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춘생 주간불교신문사 편집부장

사회봉사 단원 모집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

동국참사랑봉사단(단장=이관재·통계학)이 봄 학기 사회봉사단원 접수수를 오늘(10일)부터 3일간 받는다.

사회봉사 단원은 130여개 기관 중 자신이 선택해 자유로운 시간에 활동하며 봄 학기 기간 중 3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1학점 PASS가 인정된다. 봉사활동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다.

알림

본사 수습기자 선발관례로 17일자 신문은 쉽니다. 다음 신문은 3월 24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날마다 커가는 당신! 바로 동대신문사 기자입니다"

사건의 현장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의 꿈 수습기자모집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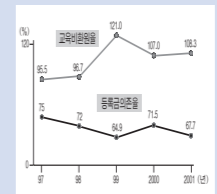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제출서류 : 본사 소장양식 1통, 명함판 사진 1장 (지원서는 본사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 ▲전형방법 : 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② 면접 및 간단한 시험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됨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3면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5년 간의 지출 현황을 통해 그동안 인상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돼 왔는지 알아본다.

5면 평화학 들여다 보기

전정 위기와 평화 이야기를 '평화학'을 통해 살펴본다.

8면 캠퍼스 문화생활 길라잡이

새내기들이 궁금해하는 캠퍼스 곳곳을 둘러본다.

복수전공제, 교수총원·강의실 확보돼야

교수 당 학생 수 초과... 전공과목 선택제한·교육 부실화 야기

2003학년도 수강신청 결과 복수전공자가 많은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등 일부학과가 학생 수에 비해 개설된 강좌수가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공인원의 100~150%까지 복수전공자를 선발한다. 그러나 교수 총원과 강의실 확보가 선행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전공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수강 정정

기간 동안 일부 학과의 경우 전공 강좌의 여분이 없어 추가로 수강 신청을 요구하는 학생들로 교학과가 붐볐다. 이와 관련해 권미림(신방3) 양은 "전공강좌가 수강을 원하는 학생에 비해 적게 개설돼 있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방과의 경우 수강신청기간 신청한 학생이 적정인원을 넘어서 정정기간에는 강좌신청이 전면 중단돼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나타냈다. 이 과의 경우 지난 수강신청기간 동안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사과

대 교학과와의 한 관계자는 "매년 수강인원이 달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원을 제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경우 수강신청 전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 시간과 인원을 조율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강 인원이 전공수업 제한인원인 80명을 넘는 경우가 빈번해 수업이 부실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일부 학과는 정원이 100명을 초과한 상태이며 반반을 하기

위해 급히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주미(영문3) 양은 "한 강좌의 인원이 너무 많아 수업이 어수선하고 수업진행도 원만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밀박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복수전공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강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혁신무대

불안한 동거

0...일부 단과대에서는 학생들이 타학과 교수와 유대감을 느끼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전공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바뀌지 않아 전공의 교수가 지도교수로 남아있다고. 이로 인해 일부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전공 등에 대한 상담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지도교수 역할 변경, 전공상담은 No, 전공선택 상담은 Yes(?)"

뒤로 전진

0...지난 수강신청기간 중 본교에서는 신중 인터넷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유인즉 서버불만에 대비해 시행한 데이터 이중화작업에 문제가 발생해 수강정정이 몇 시간 동안 중지된 것이라고.

수강정정기간에는 학내서버로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이에 대비해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혹 때려다혹 불인 수강신청 프로그램, 일보 전진하려다 이보 후퇴(?)"

어부지리(!)

0...지난 3일과 4일 교양수업의 경우 유난히 휴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알아보니 입학식이 개강 다음날 진행돼 신입생이 대부분인 수업의 경우 휴강한 것이라고.

이로 인해 신입생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신입생 맞이 필수과정! 첫 강의는 포기하라."

정정+정정

0...지난 수강신청 정정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은 학교측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는데.

알아보니 여분이 없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수강신청이 되지 못하게 학교측에서 해당 과목을 취소시키고 다른 과목을 수강하라고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 학과의 학업계획을 세우는 첫 과정인 만큼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왓, "수강신청, 잠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새터 참가자 집단 발병

학생회 새터준비 소홀... 원인 규명해야

기획사의 차량 계약 위반에 이어 속리산 신정유스호스텔로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를 다녀온 학생들이 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새터를 주최한 학생회가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새터 참가자의 7~80%가 구토, 설사현상 등을 보였으며 증상이 심한 30여명의 학생은 입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일 새터준비 책임자들은 새터사과 대책본부(본부장=임수욱·화공4, 이하 대책본부)를 구성해 참가자들의 상태와 피해정도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또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보건당국에 이번 사건을 의뢰해 지난 4일부터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립보건원의 한 관계자는 "증상은 가벼운 편이나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생회가 숙소에 대한 위생 점검이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새터를 다녀온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방, 욕실 등이 비위생적이었다"고 말해 사전방지가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책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 학생회가 스스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자진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오는 학생에게 보험처리를 할 방침이며,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속소를 대상으로 병원치료, 보험처리 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본교와 같은 숙소에서 머물며 동일한 증상을 보였던 연세대 사회과학대는 숙소측으로부터 진로비 등을 보상받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이번 새터 사고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학생회는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안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대학가 비상 ...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박거홍·상지대 교수, 이하 공투본)가 지난 7일 '2003년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투본은 △교육개방 양허요구안 철회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혁신위' 구성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1면에서 이어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예'라고 대답한 학생이 85.56%로 나타나 지난해 보다 투표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는 학생증이 없는 경우 즉석에서 노트북을 통해 실명을 확인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체계를 개정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회 선거는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 줄 대표를 뽑는 것이다. 학생들은 동약의 주인인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대표자를 뽑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사찰음식 강좌 수강생 모집 이론·조리실습·시식 등 진행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접수가 오늘(10일)부터 일주일간 여학생실에서 실시된다.

여학생실과 가정교육과가 주최하는 이번 강의는 사찰음식연구회 선제스님(가정교육)이 하며, 오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이론 △조리실습 △시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여학생실의 한 관계자는 "전통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학림관 조리실습실에서 진행된다.

언어연구교육원, 봄학기 특강 토익·영어회화 등 진행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이 봄학기 1차 특강을 오는 17일부터 한달 간 진행한다.

강의는 △기분 영어회화 △Me & My life1(초급) △Me & My life2(중급) △Writing & Speaking △Interview English △CBT TOEFL △TOEIC(기본, 중급) 10주 과정으로 주 5회 이뤄진다. 또한 봄학기 2차 특강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접수는 개강 2주일 전부터 받는다.

이번 특강을 수강한 학생은 웹토익과 모의 토익 테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학복위, 봄 어학특강 진행 토익 9강좌 개설

학생 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봄 어학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TOEIC 종합반 1~4 △소수집중 TOEIC 종합반 1~4 △이익훈 토익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주 5회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도서관=TOEIC 종합반, 소수집중 TOEIC 종합반 △구내서점=이익훈 토익에서 각각 받는다. 공개강의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삼성캐피탈 장학생 선발 내일(11일)까지 신청

삼성캐피탈이 2003학년도 1학

기 장학생 5명을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2003학년도 1학기까지 삼성캐피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평균평점 3.0이상이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재학생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내일(11일)까지 △장학금신청서 △대출약정서사본 △재산세과세증명서를 학생복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 신청 12일 까지 국제교류실

2003학년도 일본 대정대학 교환학생 신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제교류실에서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총 1명으로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또는 서울·경주캠퍼스 학부과정 5학기를 재학하고 평점평균 3.0이상이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 △재학 및 성적증명서 △어학능력시험서(JLPT·JPT) 인증서를 국제교류실에 제출하면 된다.

2003년 졸업앨범 배부 각 학과 사무실

2003학년도 졸업앨범을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찾아갈 수 있다.

대상은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2002학년도 4학년 2학기를 등록한 학생으로, 졸업앨범비는 4학년 2학기 등록금에 일괄고지 돼 전원 신청된 상태다.

DUBS 45기 수습국원 모집

- ▶ 모집대상 : 2003학년도 신입생
- ▶ 원서 접수 기간 : ~ 3월 19일 오후 6시
- ▶ 접수처 : 본교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 ▶ 모집분야 : 각 00명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 TV제작부
- ▶ 전형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 수요일 오후 6시
학생회관 4층 교육방송국
- ▶ 문의 사항 : 전화 2260-8503
홈페이지 http://www.dubscast.com

방송국에 직접 오셔서 견학도 하고, 지원서도 받아주세요. 홈페이지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된 언론 함께 하는 방송 DUBS

2003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000명), 2학년(000명)
2. 지원자격

1 학년	2 학년
'80. 10. 1 ~ '86. 9. 31 출생자	'79. 10. 1 ~ '86. 9. 3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3. 11 ~ 4. 6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1부
나. 대입수능교사 / 대학성적증명서 각 1부
다. 효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재정보증 관계서류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바. 국가유공/공무원 장기근속 자세(20년 이상) 특기/국위선양자/무도2단 이상자 확인서 1부 제출(해당자)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2003. 5. 10 ~ 5. 31
2 차	종합검증, 인성검사, 신원조회	2003. 6. 2 ~ 8. 23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8. 29
7. 특전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加分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 (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회관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예비군 지휘관, 군무원 채용
○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득기회 부여 (장기 복무시)
○ 기혼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 이용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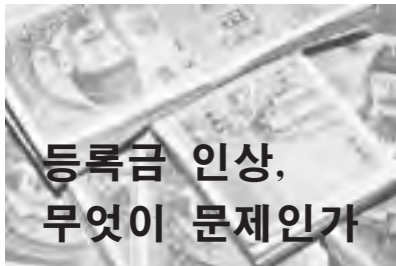
2004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0명
2. 지원자격
○ 2년안으로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2005. 3. 1 기준 만 20세 ~ 27까지의 남자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3. 3 ~ 3. 15 (2주)
4. 구비서류
가. 지원서(양식 배부) 1부 나. 효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다. 수능/대학 1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각 1부
라. 전연액 사진(4x5cm) 4매 마. 신원진술서 1부
바.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사. 면접관련서류(양식 배부) 각 1부
야. 국가유공/장기근속자세, 특기/국위선양자 확인서 1부(해당자)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2003. 3. 15 ~ 4. 5
2 차	종합검증, 인성검사, 신원조회	2003. 4. 14 ~ 8. 2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8. 9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입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 (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등록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1. 수입현황
2. 지출현황
3. 등록금 인상근거 분석
4. 등록금 협상

매년 불이던 등록금 협상으로 대학기가 시끄럽다. 올해 또한 본교를 비롯한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5%~10% 인상함에 따라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매년 등록금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학 재정구조를 통해 파악하고 등록금 협상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100% 겨우 넘는 교육비환원율

등록금,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우선 사용돼야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89년 정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한 이후부터다. 14년이 흐른 지금 사립대학 등록금은 당시 등록금의 약 배 배, 같은 기간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배 정도 오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그러면 등록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보다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재정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등록금 의존율'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결산안이 모두 공개된 최근 5년간(97년부터 2001년) 수입·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70.2%로 비슷한 규모(1만5천명~2만명)의 다른 사립대 평균과 비슷한 수치다. <그래프>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상된 등록금을 교과교과 밖지만 그만큼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 학생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교육비 환원율이다.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연구비,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도서구입비,

학생경비, 교원인건비)이 전체 등록금 수입 중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 교육서비스에 얼마나 충실하게 투자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적어도 100%는 되어야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본교 교육비 환원율은 약 107%로 비슷한 규모(1만5천명~2만명)의 다른 사립대 평균(104%)을 웃돌고 있지만 99년 이전에는 교육비 환원율이 당시 사립대학 평균(100%)은 커녕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 경우 학생들이 낸 등록금마저 모두 직접교육비에 쓰이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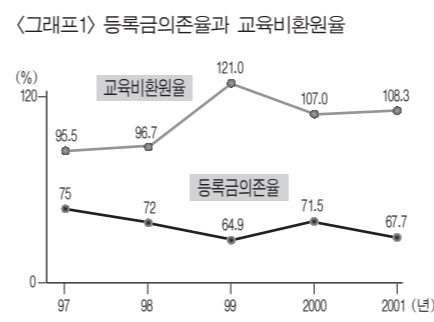
또한 2000년 등록금이 13% 인상됐는데도 교육비환원율이 오히려 14% 가량 떨어진 것도 눈에 띈다. 등록금이 증가했다면 직접교육비에 할당된 금액의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하지만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이 등록금 인상이 직접교육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비단 본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매년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데도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약 115%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접 교육에 투자되지 않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직접교육비 외 지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적지출과 이월적립금이다. 자산적 지출은 사립대학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쓰인 것으로 법인의 자산 증식을 의미하므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지난 5년동안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지출총액의 10%이상을 토지를 사거나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했음을 미루어 볼 때, 법인부담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간 평균 법인전입금은 5~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01년 본교의 자산적 지출은 19.31%로 이는 비슷한 규모의 사립대학 평균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건물을 건축하는데 쓰인 돈이 자산적 지출의 상당부분이라는 사실은 지난 1999년 첫 삼을 쓴 불교종합병원이 학교 운영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상명대 박겨용 교수는 "이미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기는 상황에서 학교가 엄청난 자산적 지출을 감행하는 것은 곧 등록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월적립금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 이월금과 특정 목적을



위해 일부러 '남긴' 금액인 적립금을 통칭하는 말이다. 본교의 이월적립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99년 이후 특정기금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사립대 평균수치인 13.1%를 넘는 19.3%에 이르렀다. 지난 2000년 본교의 기타적립금(법인)과 건축적립금이 전체 사립대학 가운데 여덟 번째로 많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등록금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교를 비롯한 사립대학들이 재정의 70%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등록금이 겨우로 법인의 자산을 늘리는 일에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교육여건 얼마나 개선됐나

등록금 올랐지만 '여건'은 제자리 걸음

97년 본교 공학계열에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하고 240여 만원이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번 학기 등록금은 320여 만원이 된다. 6년 사이 등록금이 무려 80여 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6년 동안 본교의 교육여건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학생들은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한 만큼 더 좋은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해 왔을까. <표1> 교원확보율=전일교원 확보율은 교육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97년에서 2001년까지 본교의 교원확보율을 보면, '대학실업 운영 규정'에 따른 법정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99년,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교원 수

는 늘어났어도 학생 수 증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는 신규 교원 채용이 적정 수준만큼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표2> 장학금 및 학비감면="사립대학은 학생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야 한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일부다. 이는 사립대학의 학비감면(외부장학금이 아닌 교내장학금) 수혜액은 학생 등록금의 10%를 넘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97년에서 2001년까지 본교의 1인당 등록금 총액 대비 학비감면액을 보면, 2000년에 들어서야 겨우 10%가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표2> 더욱이 같은 기간 등록금 인상율과 비교해 볼 때, 2000년 이후 증가한 학비감

면액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외에 실험실습비, 교수연구비 등도 큰 변동없이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지난 몇 년 간 본교 교육여건의 이와 같은 '정적'으로 미뤄볼 때, 등록금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직하게' 혹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실히 드러난다. 그동안의 등록금 인상 근거가 단순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이 반증된 셈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표1> 교원확보현황

년	97	98	99	2000	2001
법정정원(명)	485.1	519	522.6	553.7	560.5
교원수(명)	314	317	323	334	342
확보율(%)	62.4	61.1	61.6	60.3	61.1

<표2> 학비감면현황 (단위:천원%)

년	97	98	99	2000	2001
1인당등록금총액(C)	4,715	4,715	4,715	5,100	5,355
1인당학비감면액(D)	446	446	442	520	578.6
비율(D/Cx100)	9.5	9.5	9.3	10.1	10.8

사설

'열린 대화' 기대한다

홍기삼 총장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수숙·화공4, 이하 비대위)가 오는 11일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행정개편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새 총장과 학생대표와의 면담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니 만큼 이는 분명 주목해야 할 일이다. 첫 만남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동국의 '청사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런 점에서 여전히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만남과 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하게 될 사안을 보니 더욱 그렇다. 논의사항 중 하나인 등록금정책협의회의(이하 등책협)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홍 총장은 지난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라고 등책협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었다. 행·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되 협의기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등책협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해 34대 총학생회와 전임총장이 '등책협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는다'고 합의했지만, 총장이 바뀌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비대위, 대학원 총학생회, 경주캠 총학생회가 함께 '등책협의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등책협 기구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이번 면담 자리가 '잡지 않은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항상 강조하듯이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면 오히려 합일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소통기구를 만들고자"하는 비대위 입장과 "언제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하는 홍 총장의 견해가 일면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간담회는 총장과 비대위 양측 모두가 이야기하고 바라는 것처럼 '의견 교환과 수렴의 첫 장'으로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동국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의 견해를 이해하려 하되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내 의견을 돌아보려는 '열린 대화'로, 동국의 희망찬 '청사진'을 함께 그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국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편집인 겸 주간: 이상영
부주장: 구본철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한보라

인터넷 동국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국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1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생각의 꽃
동대신문사·문예창작학과 엮음 / 509면 / 15,000원

이 책에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만나고 경험했던 사물과 생각의 조각들이 담겨있다. 그리고 문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과거를 읽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성역사와 문화
정태섭 외 공저 / 420면 / 10,500원

한국과 동·서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 인식과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인 논점으로 엮음.

불교와 종교철학
김용표 저 / 385면 / 15,000원

종교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명을 통해 불교를 보편적 조망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한국의 전통조경
홍광표·이상윤 공저 / 394면 / 14,000원

대상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작품들을 선정하여 문헌고찰, 100여개의 도면과 500여장의 사진을 통해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수록.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오출세 저 / 415면 / 19,000원

민간신앙을 자료로 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문학과 연관시켜 성찰하는 데 주력.

한국현대문학사
김선학 저 / 377면 / 14,000원

문학사의 산맥을 답사한 사람들의 업적을 행기면서 그것에 바탕을 두고 기술. 한국 현대문학의 산맥을 이루는 크고 작은 산들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 430면 / 10,000원

여성문제를 문화혁신 차원에서 폭넓게 다루었다. 전3부12장으로 제1부 여성학의 성격, 제2부 남녀평등의 이론적 기초, 제3부 현대사회와 남녀평등으로 구성.

한방은 배설의학이다
최달영 외 역 / 255면 / 9,000원

『상한론(傷寒論)』을 비롯한 유명 한방처방의 치료법을 과학적 실험에 기초하여 그 효용이 입증된 것을 중심으로 한약과 민간약, 건강식품의 효용과 요법을 증삼마다 알기 쉽게 해설.

양주동 전집
양주동 저 / 전12책 / 320,000원

1. 고가연구 2. 여요전주 3. 국어학연구논고 4. 문주, 인생따라잡기 5. 지성의광장 6. 조선의맥박 7. 국문학정화, 상외3 8. 민족문화독본 상·하 9. 세계문화독본 상·하 10. 논문 11. 평론 외 2편 12. 수필 외 4편으로 구성.

동약론

자격미달(?)



“졸업준비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지 않을까.”

지난달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업위)에서 졸업·취업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방문자 수는 아직 저조한 편이다.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외워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졸업위원의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방문이 저조한 것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총여학생회와 총대의원회 등 다른 학생자치기구의 홈페이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면 접속하기 편리 할텐데.”

“타대학에선 자치기구 홈페이지가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되어 있다.”

몇 년전 학생자치기구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각 자치기구 홈페이지를 링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자치기구는 학내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링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논의는 흐지부지됐고 이후 홈페이지 개편이 시행된 올해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측의 논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각 동아리의 홈페이지는 같은 자치기구임에도 링크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식기구 여부를 떠나서 총학생회와 같은 학생대표기구가 링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얼마전 졸업위가 학교 홈페이지 링크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측에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또 다시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은 홈페이지가 학내 구성원 모두의 것임을 인지도고, 학생측은 이러한 논의가 다시 가라앉지 않게 학내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조선일보,

“껍데기 바뀌도 보일 건 보인다”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날 서울 평균기온은 4.5℃ 였다. 14대 때는 6.7℃ 였던 것이 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는 9.1℃까지 올라 갔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 던 시각, 기온은 3.3℃로 약간 쌀쌀 했다. 5년 동안 뿌린 햇볕이 별로 소 용없었나 보다.”

조선일보에 실린 ‘날씨 이야기’라 는 짧은 칼럼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분석 없이 묘한 여운 만 남기고 있다. 대표적인 ‘조선일 보 식’ 비판 법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제 창간한다는 심정 으로 지면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 다고 밝힌 지 40여일 지났다. 대표 논객이었던 김대중 편집인과 류근 일 주필이 1선에서 물러나고 세대 교체까지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감 안하면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단 지면은 이전과 확연히 달 라졌다. 사회 1면에 해당하는 마 지막 면에 사실을, 정치면이었던 2면에 종합뉴스를 싣고 마지막 면부터 3개 면에 걸쳐 오피니 언란을 배치, 그 중 1개면은 독 자의견으로 할애하는 등 일제 시대 이후 오랫동안 굳어진 지면체계를 변화시켰다.

또한 ‘마이내리터 리포 트’라는 기획을 신설해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고 동성 애자인권운동을 소개 하는 기사를 실은 것 도 이례적이다. 지 난달 13일에는

자전거 등 경품을 이용한 판매를 중단하 겠다는 ‘자정선언’까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창간한다는 심정”으로 내용까 지 혁신했는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문제 다. 앞서 예로 들었던 ‘날씨 이야기’ 칼럼 처 럼 아직도 근거 없이 비판하는 글이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사실 ‘역시 언론공격 뒤에는 권력 있었다’ 는 한 시사주간지가 2001년 세무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 한 기사를 내보낸 것을 두고 쓴 것이다. 아 직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은 개입 가능성이 이 사실에서는 ‘뒤에서 권력이 도와줬다’ 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언론을 향한 공격 뒤에도 권력의 손길이 뻗어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새삼스럽게 감지한다. 이번 문건은 그런 공 격 뒤에 반드시 권력이 있었다는 역사를 재 확인해 준다”

무엇이 어떤 역사를 재확인 시켜주는 것 인지 잘 판단하기 힘든데다가 ‘감지한다’ 는 단어에서 드러나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사실 이 드러난다.

지난 5일 창간 83주년 기념을 맞아 기획 한 ‘안티조선’ 특집기사(사진)는 지면개편 이 후 가장 약의적 왜곡기사가 꼽힌다. “여러 신문은 대상으로 하기보다 ‘한 놈만 죽이자’ 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어느 인사의 말을 안티조선 운동의 근본 취지처럼 설명하는 등 ‘빛나건’ 지적과 보도가 많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의 한 간사는 “조선 일보 기사가 얇아 걸리자 안티조선 단체의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보도한 것은 약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만 바뀐 게 더 위험하다” 어느 네티즌이 조선일보를 두고 한 말이다.

화려한 옷은 부패한 속살을 더욱 잘 가려주 기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변화의 본질을 판단할 주체는 바로 ‘독자’임을 기 억해야 할 것이다.

송윤경 기자
sophy1224@hanmail.net

안티조선운동 일지

- △1998년 11월 = 조선일보, 최장집 교수의 사상검증.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 공동대책위’ 발족, 안티조선운동 처음으로 진행.
- △2000년 8월 = 조선일보 반대 1차 지식인 선언. 강준만(전북대) 김동민(한일장신대)교수 외 154명.
- △2000년 9월 =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출범 및 제2차 조선일보 거부 지식인선언(152명)
- △2001년 3월 = 조선일보 반대 3차 지식인 선언. 강영환(울산대), 김민수(전서울대) 등 531명
- △2001년 5월 = 조선일보 반대 연세인 모임, ‘조선바로’ 창간호 발간
- △2001년 9월 = 조선일보 반대 4차 지식인 선언. 명계남(영화배우), 광노현(방송대) 등 739명.
- △2002년 3월 = 제3차 지식인 선언에 참여했던 소설가 문순태 약속깨고 조선일보에 기고, 논란.
- △2003년 3월 = 조선일보 반대 1차 시민운동가 선언.



안티조선을 특집으로 다룬 지난 5일자 조선일보 특집기획(22면).

No War!

평화를 위해 이라크로...

지난달 25일 수 백만명의 반전시위대가 미국,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휩쓸었다. 이러한 새로운 반전운동의 기류 속에서 한국의 반전평화팀이 이라크로 떠나고 있다. 전쟁을 몸으로 막아보겠다는 ‘인간방패’가 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반전평화팀에 참여한 대학생은 모두 두 명. 그 중 지난 16일 출발한 은국(경희대) 씨가 이라크 입국을 앞두고 한국에 보내온 메시지를 실는다.

편집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임박한 오늘은 요르단 시각으로 27일 새벽 12시 30분이다.

이제 깊은 밤이 지나고 중동의 뜨거운 해가 뜨면 부지런히 짐을 싸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지프차에 탈 것이다. 이라크 비자를 기다리며 요르단에서 보낸 10일이 한 순간처럼 짧게 느껴진다. 이제 드디어 이라크에 들어가는구나.

전쟁이 난다고 모두들 이라크를 떠나고 있는 지금,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우리들(한국 이라크 평화팀)이 어찌면 너무나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모두들 살기 위해 이라크를 떠나는데 왜 그곳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물어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죽기 위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수백만의 이라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라크 내에서의 반전 운동이 무의미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막는다면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전쟁과 평화의 선택권을 조지 부시나 토니 블러어에게 주고 싶지는 않다. 그 선택권을 내가 갖고 싶고 우리가 갖고 싶고 또 당신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면 나를 낭만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낭만관을 갖고 싶고 또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서 요르단으로,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향하고 있다.

이라크에 반전운동가가 1만 명만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을 막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수 백명에 불과한 그 숫자에서 나는 1명을 추가시키고 싶다. 그래서 낭만을, 전쟁이 없는 평화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

이라크 사람들은 참 잘 웃는다. 또 그만큼 부끄러움도 많다. 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의면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고 그 운명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기를 바라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본다.

대학주보 제공



지난달 16일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이 출국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평화학’으로 살펴본 이 시대 ‘전쟁과 평화’



평화에 대한 외침, 이제 학문으로

평화가 21세기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 최대의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국기와 특정지역을 넘어 전지구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붕괴 현상은 물론, 최근 이라크 전쟁위기를 포함하여 감소되지 않고 있는 국제갈등과 보복의 악순환 등으로 현재 인류는 평화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

평화를 갈망하고 또 이룩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우리 한반도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의 압도적 규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음습한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평화학 연구의 불모지였다. 평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평화학자가 단 1개도 개설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평화학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는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가 개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평화연구는 1945년 이후 세계적 냉전이 전개되고 이의 반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던 상황에서 본래 국제정치학 또는 안보학의 한 분야로 시작되었다.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의 부재상태를 평화

전쟁원인과 평화조건에 관한 체계적 연구·교육 포괄하는 ‘평화학’

로 보는 소극적 평화의 구현이 주된 목적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요한 갈통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북유럽과 서유럽의 학자들이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창하면서 ‘평화학’을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에 덧붙여,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각종 차별 등 법과 제도들에 의해 자행되는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물리적 및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 및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는 문화적 차원의 폭력 등 일체의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평화로 규정, 평화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소극적 평화의 실현을 다루는 국제정치학 또는 안보학이 평화를 주로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현상유지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에 비해,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추구하는 평화학은 개인, 집단, 국가, 지구 등 모든 차원과 영역에서의 평화를 탐

최근 이라크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전·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도 반전·평화 시위는 물론,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가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가 개교해 평화이론과 운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인 ‘평화학’의 지평을 열기도 했다. 이에 ‘평화학’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를 풀어본다. 편집자

핵심 과제는 지구 전체의 관점, 곧 ‘지구 중심의 평화학’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로운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구중심의 평화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류보편의 평화 철학을 정립하고 제시하는 일이다. 특정 국가나 종교 또는 학문적 입장에서 제시된 수많은 평화의 철학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론적 시각,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선, 타의 세계관을 악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상이한 평화관과 세계관은 오히려 보다 격렬한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중심의 평화철학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할 평화지도자(peacemaker)를 양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즉 효과적인 평화교육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한 평화 위협 요인을 만든 것도,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구중심의 평화학을 창달하여 지구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민족이 21세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김 광 린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혜은 교수의 국제분쟁이야기 (1)



분쟁이야기에 앞서

오늘도 뉴스에서는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수문제, 이북의 핵보유문제 더 나아가 전쟁가능성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세계의 초점이 한반도에도 많이 쏠려있음을 느끼게 된다. 지난 2월 이집트에 갔을 때도 TV를 켜면 CNN과 BBC방송에서 매일같이 이북의 핵문제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뉴스가 보도됐다. 돌이켜보면 1년 365일 어느 하루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한 뉴스가 빠지는 적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또 하나의 슬픈 소식을 접해야했다. 우리 국군 5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겨울문순의 영향을 받는 동티모르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강을 건너던 우리의 군인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들은 전쟁에 개전되어 싸우다 전사한 것도 아니고, 한동안 분쟁에 휩싸였던 동티모르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하여 단지 유엔 평화군의 일원으로 주둔해 있던 우리의 군인들이었다. 동티모르에 분쟁이 없었다면, 그들은 한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다.

20세기 말 우리는 동서냉전체제가 막을 내렸다고 모두들 기뻐했다. 세계 제1·2차 대전을 치르면서 돌로 나누어졌던 세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세계는 지역간 싸움이 끊이지 않는 ‘분쟁의 장’으로 변화해 버렸다.

동서냉전체제의 와해라는 소식과 함께 구소련의 연방국들은 와해되어 각기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몇 번의 변화 속에서 현재는 과거 연방국 중 3개국은 독립되어 있고, 나머지 12개국이 독립국가연합(CIS)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쳐있으나 과거와 같은 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체코슬로바키아는 합병 전으로 되돌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었고, 민족·언어·종교의 다양성으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는 무력충돌이라는 내전을 거쳐 현재는 5개국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동남아시아의 동티모르 등 많은 지역에서 극지역적인 분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들은 대체로 민족·인종·종교적 갈등 등 문화적인 이유와 지역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랜 분쟁지역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권 국가들간의 분쟁도 그들의 거주역사와 종교문제, 민족분쟁에서 파생되었다. 영토적으로는 영국에 속해있으나 문화적으로는 아일랜드와 동일시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와 영국간의 분쟁, 간디 수상의 암살로까지 이어진 인도에서의 분쟁 등은 종교적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간의 갈등도 지역간·국가간의 갈등도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시작된 것은 없으며,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도 없다. 모두 오랜 기간 축적되어진 갈등의 폭발이며 국제사회의 힘이 어느 지역으로 변화하는가에 따라 그 갈등의 폭발시점도, 폭발지역도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갈등은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고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와 지역적 다양성이 함께 거론되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지역을 사례로 들어 그 원인과 전망을 고찰해 보려한다.



평화특강 ‘이라크 전쟁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지상중계

학술단신 함석헌 선생 탄생 10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함석헌 선생 탄생 102주년을 맞아 함석헌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민주정신의 뿌리’를 탐구하는 학술심포지엄을 오는 13일(목)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다.

△통학의 민주정신 △3.1정신과 남강 이승훈의 민주정신 △함석헌의 민주정신에 대해 각각 오문환(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 서평일(한신대 국사학) 교수, 박재순(씨알사상연구회장) 박사가 발제하고, ‘신인간’ 편집장 성주현, 김기승(순천향대 역사학) 교수, 유현식 문화비평가가 이에 대해 논평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716-2918

제14회 아침해 월례특강

‘문화카페 아침해 가득히 핀땅’에서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3회연속 ‘인권’ 기획강좌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강좌가 오는 17일(월) 오후 7시 ‘인권의 역사 그리고 사회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이다.

두, 세 번째 강좌는 오는 4월 21일과 5월 19일에 각각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 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 ‘감옥 인권을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은 40명이며 회비는 5천원이다. 문의 02)885-6905

‘이라크 전쟁위기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의 평화특강이 ‘좋은 벗들’과 ‘정토회’ 주최로 지난 7일 정토회관에서 열렸다. 강연자는 평화와 불교이론을 접목시켜 남북 불교통합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 박사. 이날 강연은 현 국제사회의 현실을 바로 알고 평화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강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위기

미국과 이라크의 적대관계는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이라크에 핵 사찰을 요구하고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됐다. 이런 악화된 관계는 지난 98년 미국의 주도로 채택된 사찰강화결의안을 이라크가 거부하면서 심화됐다.

조성렬 박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원인을 △중동지역에서의 입지 강화 △석유 확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반테러 전쟁의 연장선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격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국제 협력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미국이 자국의 힘을 과신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의 뚜렷한 반대여사가 없어 이라크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반도 문제

북미관계는 지난 94년 북 핵 위기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오던 중 지난 9.11테러 때 북한이 테러의 원인제공이 미국에도 있다고 말해 급격하게 악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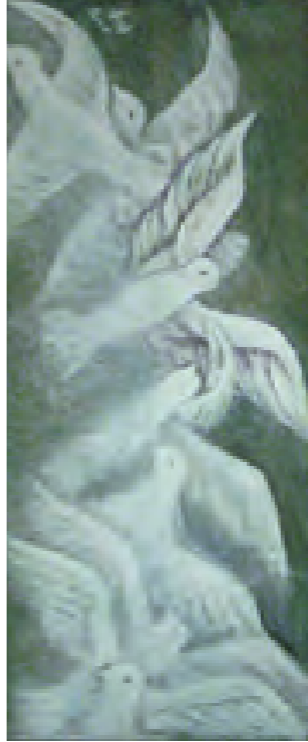
이라크 공격과 달리 미국의 북한 공격은 주변국의 강력한 저지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조 박사는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며,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한은 북한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소위 ‘진보와 보수’ 사이의 거리를 좁혀 나가야 북미 사이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우리나라에서 앙상적 병역거부를 최초로 선언한 오대양(29) 씨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오 씨는 “이제 남은 과제는 평화실현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전·평화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평화 관련 논의와 움직임은 대학가를 비롯한 학계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주/제/서/평 ‘전쟁광란’에 휩싸인 한반도와 지구촌

이라크전쟁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 차례는 바로 한반도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은 북미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한반도사이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 모두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이 시점에서 유용한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하나는 미국민중사의 대가이고 반전평화인권운동의 실천적 지식인인 하워드 진 교수가 쓴 글들을 편집한 ‘전쟁에 반대한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화운동가이자 젊은 실천적 지식인인 정옥식의 ‘2003년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이다.

앞의 책은 오늘날 지구촌을 전쟁의 광란으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인 미국이 벌여왔던 인디언 대학살극에서부터 발칸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베트남전쟁, 2차세계대전 등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동시에 한국전쟁, 파나마전쟁, 그레나다전쟁 등도 부분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이들 전쟁에서 미국이 저지른 집단학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들추어내고, 국제법이나 국내법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전쟁을 감행 및 주도하는 국제테러리스트로서 미국의 진면목을 폭로하고, 전쟁에 관련된 역사적 진실은 은폐할 뿐 아니라 정당화하는 미국의 주류를 고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그야말로 비밀스런 장막에 가리놓고 심비화시키는 현상들을 파헤쳐서 진실을

들추어내는 비판적 학문의 진수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쟁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비폭력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비폭력저항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책은 2차대전 이후 지구촌 전쟁의 주범인 미국에 대한 고발이고 탄핵이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고뇌가 응축된 결집이다.

뒤의 책은 북핵문제를 빌미 삼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의 주류인 친미시대주의의 시각이 아닌 우리 중심의 눈으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 맹목적인 친미주의가 아니라 비판적 지미(知美)주의로 북한 핵문제를 분석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에 대한 탄핵이고 우리 주류 정치세력이나 언론에 대한 고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작금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네바합의나 10.12북미공동성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요인분석에 그치지 않고 부시가 자행하려는 ‘예방전쟁’에 대응해 노무현정부의 ‘예방외교’에 기대를 걸면서 민중시민사회의 ‘예방운동’을 역설하고 있다.

운동가로서 저자는 우리 학계에 있는 교수집단이나 지식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것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권의 문제

만큼 긴요한 것은 없을 텐데 이를 줄곧 외면하는 지식인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부시 대통령 당선에 확정되자마자 2003년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타령이냐고 비아냥 거리가만 해왔다.

CNN투표에서 북한 및 이라크와 미국 중 세계평화의 최대 위협국가로 미국은 서너 배의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진짜 ‘악의 축’과 알차배기 무뎠다는 북한과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와 한반도 전쟁이야말로 전형적인 미국의 범죄행위임이 명백해졌다.

부시정부 고위층 상당부분이 군사복합체와 연결되어 있어 전쟁을 통해 때돈을 벌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이다. 전쟁이라는 집단 대량살인을 통해 돈을 벌게되는 부시정부 고위층은 보통 살인범보다 더 악랄한 살인범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

바로 미국과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본질을 이 책들은 잘 파헤치고 있어 긴박한 한반도전쟁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책 마련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책들을 읽고 자신에게 되물어 보자.

강정구
사회학과 교수

소나기

이런 교육부총리를 바란다



△본질적인 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
 △교육개방 NO! 중등·고등 무상교육 도입!
 △올바른 민족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역사관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
 △100년 뒤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부총리~
 △그냥 새로운 총리가 됐으면.....
 △교육부 장관 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
 △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만한 사람
 △교육 정책 자주 바꾸지 않았으면.....
 △이상보다는 현실에 맞춘 교육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
 △임기 꼭 채우는 교육부총리!
 △학벌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교육부총리와는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사람~
 △정직한 사람? NO!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NO!
 교육부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라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더 이상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
 △대학 안가도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모든 학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
 △부총리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모든 교육비를 국가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외국의 교육제도 그대로 따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
 △서울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세상, 이제는 바뀌주세요!
 △말로 뛰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자~ 일단 개혁부터 합시다!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윤덕홍 부총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얼마전 모 일간지에 20대 취업여성의 10% 정도가 여러 가지 형태의 매춘에 종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곳에서 직업적인 매춘을 하는 여성 뿐 아니라 전화방, 단란주점, 사우나 등지에서 소위 말하는 2차가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가를 떠올린다면 이 숫자가 그리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를 접할 때 느끼는 점은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집단이 전면에 드러나는 반면 '성을 사는' 남성 집단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행위가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윤락' 여성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역전현상은 드러난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속에는 여성이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도덕적 타락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그간의 남성중심적 성문화가 여실히 드러난다.

1년여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성매매 반대 심포지엄에 참석차 왔던 여성학자 캐슬린 배리



논단

이수자
성신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성매매 거부운동의 의미

가 강조했듯이 매춘은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하는, 여성억압의 제도적 폭력'이다.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포르노사이트가 눈앞으로 튀어오르고 온갖 형태의 성매매가 유행하는 사회에서 매매춘은 '정상적인 상관계'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든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데 바로 주변의 순결한 여성들(어머니, 누이)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창녀'로 보는

이분법이 그것이다. 실제로 매매춘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매춘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남성들의 무의식 속에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구조화시킨다. 이는 바로 일상 속에서 여성의 몸과 마음을 파편화시키고 여성을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기제이며 이로써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타자화된다.

다수의 매춘여성들이 10대에 성매매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투명하게 쓰이기

2003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두 달 여간의 짧지 않은 방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온 학교는 높게만 느껴지는 언덕부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불상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듯 하다. 다만 오랜 시간 걸려 완공한 새로운 중앙 도서관이 그 위용도 당당히 서 있는 것이 달라진 점 이랄까.

새 도서관은 방학동안 도서관을 이용했던 학생들에게 든든 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시설

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열람실 좌석은 불만스럽지만 예전 도서관에 비해 좋아진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에는 도서관 화장실에 들렀다가 자동으로 형광등이 켜지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정말 돈을 들인 티가 난다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낸 돈이 이렇게 도서관을 짓는 것과 같은 학생 편의를 위해 더욱 많이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번 학기에는 전 학기에 비해 등록금이 무려 10%나 인상됐다.

매년 등록금이 오르지만 인상 분만큼의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학교측은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격하게 변명만 할 게 아니라 등록금을 어디에 썼는지 예산안을 확실히 공개하고, 학생들이 많은 등록금을 낸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복지를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교보다 등록금이 훨씬 적지만 복지혜택은 훨씬 많은 국립대학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학교가 원하는 대로 묵묵히 거액의 등록금을 내라는 것은 억지에 가까우니 말이다.

임지원(중문3)

내 생애 하루뿐일 특별한 날

나는 의미 있는 책을 읽을 때면 습관적으로 한 구절씩 펜으로 정성스럽게 밑줄을 친다. 그리고 재미있는 만화책을 읽을 때면 얼마 남지 않은 뒷 부분이 아쉬워 조금씩 아껴가면서 만화책을 읽곤 했다.

그러한 책들 중 하나가 바로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다. 이 책은 이미 영화 '밀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저 흥미 위주 영화를 봤거나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단지 '블루'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이야기할런

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을 읽어가다보면 독자들은 불륜이라는 소재보다는 작가 전정린 씨가 표현하고자 했던 삶의 저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욕망 혹은 진실에 대해 시선을 멈추고 진지하게 느껴려 할 것이다.

인간은 행복이나 불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오히려 행복이나 불행이 인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렇다! 운명을 받아들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작은 의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꼈으면 한다.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단지 배타적인 자세로 본인의 환경에 불만을 갖고 일종의 저항정신으로 삶에 맞서

서는 안 된다. 어차피 옳은 인생의 모델 따윈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저 자기에게 맞는 인생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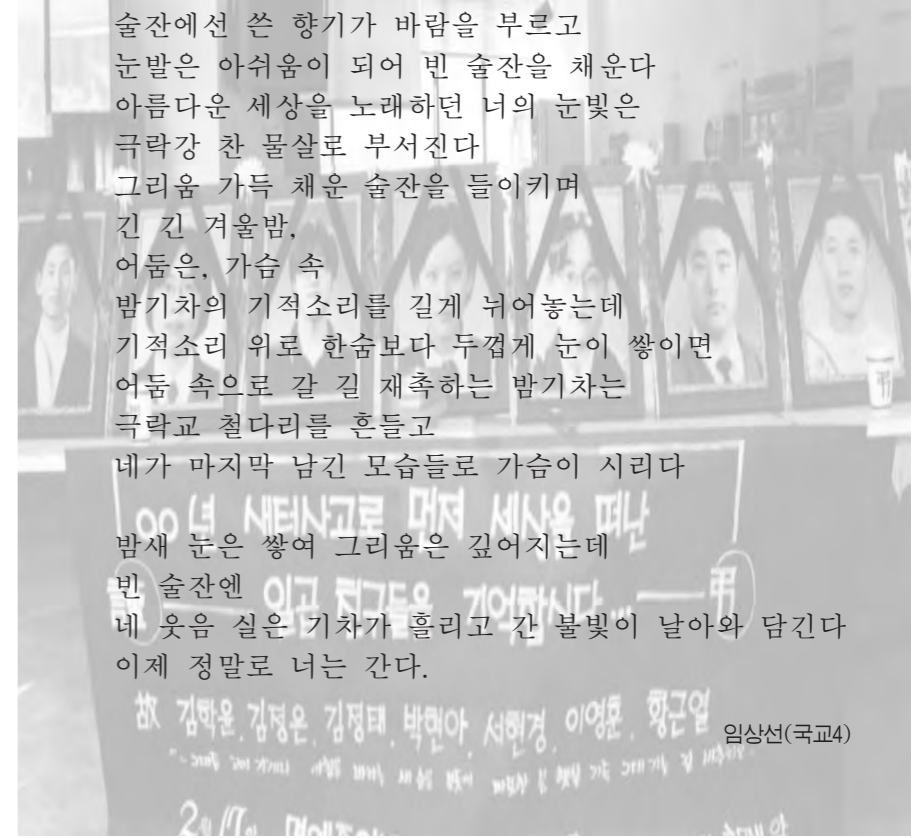
이 책에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삶에 시비를 거는 슬픈 폭력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 책은 내가 알고 가장 현실적인 철학바이블이다. 내가 알고 있는 너무도 흔한 불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나를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타인의 절대적인 허용을 받고 싶을 뿐"이라는.....

이선중(인철4)

내가 지고

- 일곱 후배들의 영전에 부쳐



술잔에선 쓴 향기가 바람을 부르고
 눈발은 아쉬움이 되어 빈 술잔을 채운다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던 너의 눈빛은
 극락강 찬 물살로 부서진다
 그리움 가득 채운 술잔을 들이키며
 긴 긴 겨울밤,
 어둠은, 가슴 속
 밤기차의 기적소리를 길게 뉘어놓는데
 기적소리 위로 환승보다 두껍게 눈이 쌓이면
 어둠 속으로 갈 길 재촉하는 밤기차는
 극락교 철다리를 흔들고
 내가 마지막 남긴 모습들로 가슴이 시리다
 밤새 눈은 쌓여 그리움은 깊어지는데
 빈 술잔엔 이고 향기는 기억이다
 네 웃음 실은 기차가 홀리고 간 불빛이 날아와 담긴다
 이제 정말로 너는 간다.

임상선(국교4)

서울 ☎ : 2260-3491 · 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
 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성덕환 - pybumbuk@hanmail.net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친일문인에 대한 문제 지적

길고 긴 겨울 방학이 끝나고 개강과 동시에 어김없이 새로운 소식을 담은 동대신문을 만났다.

그중 내 눈길을 가장 끌었던 기사는 '친일 문학 되찾아보기'라는 기사였다. 방학중에 학교 식당을 가다가 본관 앞에 걸려 있는 선전물에 '미당 서정주 유품전'을 반대하는 문구를 보았다. 또한 언젠가 중앙 도서관 앞에서 학생회가 주관하는 미당유품전 반대 피켓팅을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 더욱 기

사에 관심이 쏠렸다. 나 같은 경우 학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정주를 비롯해 여러 문인들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대학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과학회에서 '친일문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문인들을 민족 시인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문인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동대신문의 '친일문학 되찾아보기' 기사는 그러한 점에서 동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친일 문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

하지만 친일 문학 연구에 대해 아직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안되고 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 점은 좋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일 문학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돼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면 더욱 좋은 기사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종관(역교3)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김지민 씨 생일을 축하하며 올레엔 꼭 졸업하십시오!
 △2003년도 탈을 이끌어갈 02 집행부 보운, 낙현, 유미, 해원 축하합니다.
 △물짱!! 7대 물짱 취임 축하합니다!!
 △선영아 생일 축하해! -논
 △J야 조인성한테 짜인 받은 것 축하해!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신 모든 새내기 여러분 축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준비위원회 앨범분출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심 양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요.
 -논 큰 아이 덩에
 △자연이형 신입생 환영회 준비한다고 고생했다.
 △여성대회 준비한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one~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몰래 피땀 흘리고 있는 당신!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다

△우리 오(5)공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하시다. -란이
 △세18대 민족사 연구회 화이팅!
 △탈 집행부 02학번들 올레도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생활합시다.
 △피어리스턴&에이펙스 홍보공연 재미있게 준비하세요. -홍길동
 △민중사랑 회장님! 열심히 하세요 -용이

그리고...

△진영 양! 내가 사랑하는 알지? 항상 곁에 있는거야 ^^ -B·P
 △인현 인명여고·인창고 졸업생 여러분, 3월21일 6시에 만해시비 앞에서 만나요. -인명2회 졸업생 주영이
 △sook! 이제 돌아오라~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3/10)	쇠고기당면탕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배추국백반 (1500)	참치김치찌개 (1300) 닭조림 (1500) 후랑크아채볶음 (1500)	조기매운탕 (3200) 제육갯잎볶음 (3200)
화(3/11)	돈육푼고추찌개 (1300) 모듬볶음밥 (1500) 닭도리탕 (1500)	사골우거지탕 (1500) 두부김치 (1500) 피자돈가스 (1500)	속토장국 (3000) 콩치구이 (3200)
수(3/12)	설렁탕 (1500) 해물덮밥 (1500) 미역국백반 (1500)	아육국백반 (1500) 쭈꾸미제육볶음 (1500) 생이채비빔밥 (1500)	초밥우동 (3500) 삼겹살김치볶음 (3200)
목(3/13)	꼬치어묵우동 (1500) 치킨가스 (1500) 감자불고기비빔밥 (1500)	갈비탕 (1500) 삼선볶음밥 (1500) 잡채밥 (1500)	영계백숙 (3800) 불나물비빔밥 (3000)
금(3/14)	순두부찌개백반 (1500) 오징어떡볶음 (1500) 족찜 (1500)	콩비지찌개 (1500) 지장밥 (1300) 닭꼬치구이 (1500)	해물전골 (3500) 더덕구이 (3500)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대학생 공모전 기업·학생 모두 이익... 심사과정 공정성 과제

'내가 생각한 광고나 디자인이 실제로 TV와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보여진다'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고 나서야 가능할 법한 일이 대학 재학 중에도 가능하게 됐다. 각 기업에서 홍보 및 관련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 개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몇몇 업체의 경우 이를 좀 더 넓은 범위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두 업체인 에스콰이는 '영에이지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

선발된 디자인 중 일부를 상품으로 내보인 바 있으며 IT 전문 출판사 영진닷컴의 경우 대학생 저자 공모전 수상작을 책으로 발간해 베스트 셀러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활용하는 기업이 홍보 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이디어까지 얻는 효과를 보자 각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공모전 개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진닷컴 경영전략실의 최미영 대리는 "공모전을 통해 회사에 대한 홍보 효과와 IT분야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모작이 우수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모전에 입상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의 상금을 받을 뿐 아니라 취업시 눈에 띄는 이력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02 컨디션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 응모해 장려상을 수상한 김영호(광고3) 군은 "공모전에 응시해 그동안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자 심사의 공정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공모전의 경우 '인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 광고학과 한 학생은 "공모전에 당선돼 인터넷 등에 전시된 작품 중 일부는 당선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인 경우도 있다"며 "이는 입상작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교의 경우 공모전에 대한 정보가 타 대학에 비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각 학과별로 기업체 등에서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실에서 공모전 포스터만 붙이는 등 이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들이 공모전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생 공모전은 기업의 이익과 학생 요구의 부합이라는 '찰떡 공합'에 힘입어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이제 기업체 뿐 아니라 대학 등 많은 곳에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콘텐츠, IT,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학과에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응모해서 당선이 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실력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경험에 큰 도움이 되는 '열려있는 기회'. 대학생을 나타내는 단어가 패기와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회에 한번쯤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문화인이 말하는 나의 하루



"영상으로 관객과 대화하려고"

박경태

일민대학원 영상사회학 석사과정



얼마 전 '나와 부영이'의 시사회를 무사히 끝냈다. 기지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점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우리 학교에서 열린 '반미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일반 관객을 만나기도 했다. 딱딱한 증언이 아닌 잔잔한 이야기라는 의도를 살리기 위해 촬영 내내 머릿 속에 여러가지 고민이 가득차 있었다.

영화 '나와 부영이' 제작일지 중에서 촬영 # 1 동네 언덕

봄의 이미지, 나뭇잎들이 조금씩 날 무렵 동네 언덕에서 처음 촬영을 시작하였다. 헬기 소리와 차소리, 야채장수 소리 등 동네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시도한 촬영이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지만 헬기소리가 겹쳐지면서 이곳이 전형적인 군사지역 동네임을 알게 해준다.

곧 나팔소리와 함께 대포소리가 들린다. 그 날의 업무 종료를 알리는 소리는 아마도 기지촌의 저녁을 알리는 상징적인 소리일 것이다.

촬영 # 4 두레방 입구

촬영 실수. 왜 그랬을까! 대부분의 그림이 날랐다(노출이 맞지 않은 상태). 동네 이미지 촬영도 제대로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고 산만하게 나열되어 있다. 주인공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나)는 계속 맴돌고 있

다. 자신이 없다. 사람을 찍기보다는 그림과 배경만 계속 찍어냈다.

촬영 # 5 미술치료

미술시간, 주인공으로 정해진 박인순 아줌마가 평소와 다르게 잘 차려 입고 왔다. 목에 거는 야광 염주와 손목 염주를 하고 왔다. 검은색 니트에 꽃무늬 바지, 잘 빚은 머리 등 평소 인순이 아줌마와는 조금 달라보였다. 카메라를 의식하는지 계속 "필 찍을 거야?" "인제 또 올거야?"며 질문을 한다. 카메라 앞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이는 인순이 아줌마에게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집중해 들어갔다.

촬영 # 7 술 취한 인순이가 아줌마

기지촌에 비가 내린다. 기지촌에 비가 내리면 이미지는 한층 선명해진다. 그리고 오늘 인순이 아줌마는 술을 마시고 두레방으로 왔다.

민취된 상태에서 나오는 아줌마의 말과 행동,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숨죽이며 조용히 찍었다. 이상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지금 카메라를 드는 게 맞는 것일까?

앞으로 계속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싶다. 필름으로 관객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내 영화작업의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오는 4월에 열릴 '전주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이 그 출발점이다.

문화단신

여성만화작가 기획초대전

서울에니메이션센터와 한국여성만화협회(회장=신일숙)가 공동 주최하는 '여성만화작가 기획전'이 다음달 6일까지 서울에니메이션센터 만화의 집 전시관에서 열린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리니지'의 신일숙, '비천부' '불의 검'의 김혜린 등 국내 유명 여성만화작가 61명의 일러스트와 소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매일 2~3명의 작가가 팬 싸인회를 진행하며 작가들이 직접 만든 인형이나 도자기 등의 소품도 전시된다.

문의 3455-8352

2003 신춘단막극제

한국연극연출가협회(회장=이종훈)의 주최로 열리는 '2003 신춘단막극제'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매년 신춘문에 당선작과 단막극을 소개하는 이 행사는 △19일~23일 = 투신(조선일보·음석중 작/김관수 연출), 브라질리아(한국일보·김민정 작/김태수 연출), 장난감 총(대한매일·변혜령 작/박재안 연출), 다섯가지 동일한 시선(동아일보·전소영 작/성준현 연출) △26일~30일 = 꿈(안톤 체홉 작/김태용 연출), 버드나무 선 동리의 풍경(유치진 작/김희수 연출), 입에 꽃이 핀 남자(루이치 피란델로 작/임경식 연출)을 무대에 올린다. 문의 744-8617

적게 말하고 많이 남기는 연극 맛보기

저예산 연극 선보인 '비포장 연극제'... 침체된 연극계 활성화 계기 마련

최근 거대한 자본을 투자한 국내의 뮤지컬에 관객들이 몰리자 대학로 소극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자본과 규모 차이에서 연유한 소극장 관객 기근 현상은 일부 극단들로 하여금 상업성 짙은 연극들을 선보이도록 했다. 하지만 아직 대학로엔 연극 자체에 열정 넘치는 젊은 연극인들이, 그리고 그 뒤에 '비포장연극제'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

비포장연극제는 상업적인 연극계에 반기를 들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극장 규모의 저예산 연극으로 관객을 만나겠다는 취지 아래 지난해 시작한 행사이다. 특히 연극계 최대 불황기인 연초에 관객들을 찾아간다는 점, 즉 제법 큰 위함요소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포장연극제는 더욱 눈길을 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최인훈 작/홍인표 연출)' 살아간다는 것'(마리아 아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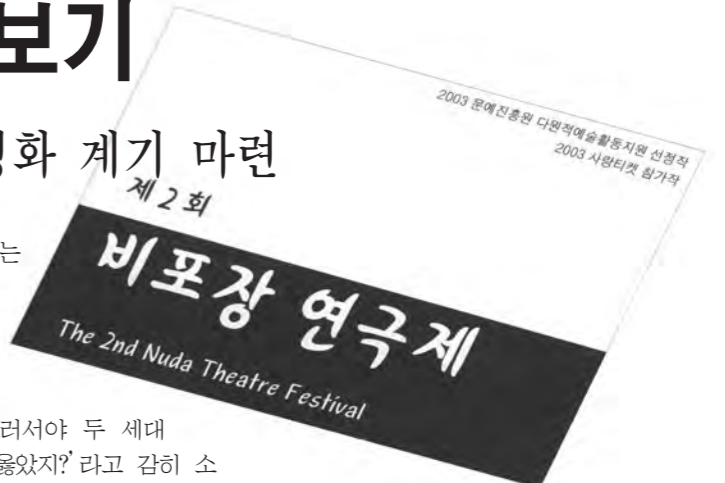
포네스 원작/임형수 연출)' 담불 속 이야기(아루타가와 류노스케 작/ 박찬진 각색·연출)에 이어 지난해에는 극단 오리사냥이 류드밀라 라주롭스카야 원작의 '존경하는 엘레나 세르게예브나'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과 중년의 수학선생 엘레나 세르게예브나가 세대 차이에서 겪는 갈등을 그렸다. 졸업을 앞둔 발로자, 빠샤, 비자, 말라가 학점을 올리기 위해 엘레나 세르게예브나에게 시험지 보관 소 열쇠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그들에게 열쇠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에서 풍족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같은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엘레나 세르게예브나가 외치는 선과 정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굳어지고 그 과정에서 스승과 학생 역할이 묘하게 바뀌기도 한다. 결국 말라를 강간하려는 발로자에게 엘레나 세르게예브나는 열쇠를 주지만 누구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두 세대 모두 서로에게 '내가 옳았지?'라고 감히 소리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범순 연출가는 "열쇠는 세대간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아직 살아있는 선일 수도 있지만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말했다.

두개의 벽면을 무대로 사용하는 이 연극에는 특별한 무대장치도 없다. 그럼에도 연극이 가지는 힘을 마음껏 발산한다. 이는 화려한 무대를 견어버리고 연극 자체만으로 배우와 연출가, 관객간의 가장 가깝고 솔직한 대화의 장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대안' 연극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포장연극제. 이번 행사는 막을 내렸지만 바야흐로 대학로 골목어귀의 소극장들이 또다른 비포장연극제를 시작하는 시기이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자주 열려 더 많은 연극인들이 무대에서 땀을 흘리고 그 땀방울에 더 많은 관객들의 웃음과 눈물이 묻어나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매체비평

도서 편

침묵으로 지은 집

“현대사 속 ‘자폐아’인 여성 침묵 깨고 목소리 내다”



여성 사회학자 조은(사회학)교수의 자전적 소설 '침묵으로 지은 집'.

“침묵으로 지은 집”이라니, 침묵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왜 침묵으로 지어야 했을까? 요즘 감각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느낌의 책제목이라는 생

각을 하면서 첫 장을 넘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현대 공간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무거운 주제에 소설 몇 권은 될 많은 내용을 천천히 또는 빨리 본다. 그 여성들에 대한 생각이 책장이 천천히 넘어가고 그 앞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빨리 넘겨본다.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른다. 카드로 지은 집. 썰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자폐아가 된다. 속에 감추어둔 영혼의 상처를 카드로 집을 만들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오랫동안 말없이 침묵 속에 지은 집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자폐 아였던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좋은 가운데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무슨 자폐라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여자’의 이야기 아니고 그냥 여자들의 이야기이다. 아버지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우리 현대사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여자와 함께 살아남은 우리 ‘남자들’의 이야기도 하다. 그것이 왜 자폐가 되는가?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아버지는 개념 아래 이루어지고 지탱되는 사회에서, 아버지 없는 집의 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없는 자녀들이 갖는 죄의식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가족의 부족함, 부덕함 탓이지 사회의 탓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회를 탓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를 자극하는 안 되는 것은 특히 여자들에게 강요된다. 남자들의 경우는 영웅이 될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그렇다. 그것은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기에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미덕이 되기도 한다. 강요된 이 침묵은 기억 속에만 저장되었다. 다행히 침묵은 망각도 무지도 아니었다. 침묵 속에 감추어진 기억들은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현존의 유일한 역사가 되었다. 이것은 왜 이제 진술되는가? 과거이면서 동시에 새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억은 단순한 거울의 반사가 아니다. 이 기억은 그 안에 등불을 갖고 있는 거울과 같다. 이 거울에서 나온 빛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줄 뿐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비추이기도 한다. 카드로 만든 집이 완성되는 순간 여자는 자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침묵으로 지은 집이 ‘드디어’ 만들어졌으니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까지 침묵 속에 저장해두었던 기억들이 ‘목소리’가 되어 밖으로 뿔뿔이 날 것

이다. 우리가 그 기억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인 정현종이 가르쳐준 바 있다. “자기의 경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올 때, 즉 기억의 창고 속에 앙금처럼 쌓여 있던 쾌락이나 욕망, 공포들이 현재의 삶을 비집고 나와 이마에 흐르는 땀처럼 명백히 현존할 때, 그 친근한 방문객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 - 가령 세수를 할 것” 이 자폐의 역사는 오래다. 책 말미에 ‘수절’이라는 항목으로 찾아진 조선왕조실록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썰리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자폐에서 벗어난다. 이 사회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먼저 세수를 한 사람들일 것이다. 신연우 서울산업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새내기 캠퍼스 문화생활 길라잡이

중문 출발
김해린(이하 김) =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가보지 못한 곳이 가본 곳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가본 곳도 강의실과 식당에 불과하구요. 노창호(이하 노) = 캠퍼스가 넓은 편은 아니지만 공부할 곳, 쉴 곳이 곳곳에 숨어 있지.

박물관
노 =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교의 역사를 보여주고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어. 우리 학교는 불교종립학교인 만큼 박물관의 유물도 불교에 관련된 게 많지. 다른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건 아쉽지만 말이야.
김 = 우와, 학교 안에 박물관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일반 박물관처럼 유물을 설명해주는 큐레이터 분도 계신가요?
노 = 응, 전문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상시적이지는 않은데 미리 문의를 하는 게 좋을거야.

나체발
노 = 우리과의 아지트이기도 한 나체발이야. 봄에는 벤치에 둘러앉아 얘기도 하고 차도 마셔.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좀 봐. 그 옆에 키는 작지만 푸르고 무성한 잎을 가진 소나무와 무척 대조적이야?
김 = 큰 나무는 너무 늙었어.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 =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큰 나무가 더 좋아. 비록 지금은 잎이 없지만 눈꽃이 있잖아.
김 = 저도 앞으로 자주 와서 지켜봐야겠어(웃음). 저 눈꽃이 터질 때쯤이면 저도 나체발 풍경에 익숙해지겠지?

해화관 앞 카페테리아
김 = 여기는 새내기 학생들의 휴게공간인가요?
노 = 아니~. 학내 휴게공간은 어디든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

용할 수 있는 곳이야. 특히 이곳은 여름에 그들이 드리워져서 무척 시원해. 가을엔 바다에 낙엽이 가득 쌓이고.
김 = 원탁에 둘러앉아 시험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걸려 있는 천막은 뭐예요?
노 = 아, 플래카드? 하얀 천지에 글씨 쓴 벽보 많이 봤지? 그것을 대차보라고 하는데 학생들간의 소통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
플래카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둘 다 대학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것들이지.

삼목원
노 = 선배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서 “밥 사주세요~”라고 말해. 밥 한번 같이 먹는 게 얼얼 열 번 보는 것보다 훨씬 금방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김 = 네~. 참, 우리 학교 식당은 모두 비슷한 메뉴만 있나요?
노 = 아니, 식당마다 달라. 특히 해화관 옥상 매점에서는 떡볶이, 순대같은 분식을 먹을 수 있어. 위치가 높아서 내려오면 모두 소화가 되버리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웃음).

만해시비
김 = ‘남의 침묵’이 적혀있었어?
노 = 만해 한용운 남이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이거든. 만해시비 뒤쪽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기도 해. 멀리 보이는 만해광장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광장이자 축제 등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곳이야. 지난해는 여기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응원전을 펼쳤어.

학림관 주변
노 = 학림관 소강당에서는 동아리·소모임 공연 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영화도 볼 수 있지.
김 = 무료요?
노 = 물론이야. 영화는 최신작도 볼 수 있어.
김 = 우리 학교에도 연못이 있네요? 게다가 물레방아까지.
노 = 봄에 오면 뒤편에 진달래가 피서 더욱 멋진 휴식공간이 돼. 그리고 여학생실 2층에는 여학생을 위한 휴게실이, 1층에는 남·여학생 누구나 원하는 미디어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탐방을 마치며
김 =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학교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은 것 같아요.
노 = 나도 덕분에 새내기가 된 기분이었어. 돌아본 곳 중에 나도 제대로 이해해보지 못한 곳도 있는데 앞으로 자주 이해해야지.
김 = 이용만 잘한다면 학내에서도 웬만한 문화생활은 다 하겠는걸요(웃음).
글·사진=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나의 새내기 생활

교수 - 이호규(신문방송학)
군사정권이라는 사회 상황 현실에 대한 의문해소 먼저

“교복을 던지고 젊음을 만끽하려 했지만 사회적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네.” 대학에 입학하며 ‘똥공이 똥공 겹겹에서 깨져 나오는 기분’을 느꼈다는 이호규(신문방송학) 교수. 그는 새내기 시절 ‘전두환 정권’이라는 사회적 상황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 현실에 대한 고민이 앞섰다. 따라서 이 교수의 새내기 생활 역시 이와 관련된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공부보다 사회 현실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이 더 중요했네. 이런 의문을 풀다 보니 나도 어쭙잖은 민족주의자가 됐었지” 이 교수는 서클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을 하고 평화문제연구소 등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했다. 그에게 대학생활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왔던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몰입해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이외의 것을 즐기는

분위기에. 대신 대부분 정말로 하고 싶은 무언가에 몰두해 있었지.” 이런 그의 경험 때문이었을까. 그는 요즘 학생들이 점점 대학을 단순히 취업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그가 생각하는 대학은 그동안 중·고등학교 등에서 배웠던 여러 지식들을 한 번쯤 의심하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장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많은 새내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꿈을 안고 본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수의 말처럼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기 위한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까.

김진성 기자 yearam@dongguk.edu

고학번 학생 - 김형환(신방4)
다양한 경험 쌓기 위해 학업 외 활동 두루 참여

84년생 학생들이 벌써 1학년 후배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김형환(신방4) 군은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다. 김 군의 학년이 높아졌듯이 캠퍼스의 모습도 김 군이 입학할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그가 신입생이던 96년에는 학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욕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할 수 없던 모든 걸 해보고 싶었어.” 그는 우선 사회과학사적을 읽는 소모임 활동과 집회 참여를 통해 국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현대사에 대한 의문점들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과 학술소모임에서 진행하는 자유주제 토론에도 매주 참석해 토론문화의 재미를 만끽하기도 하고, 취미를 살려 노래패 활동도 했다. “뒀든 잘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새내기 시절의 재산이죠”라고 말하는 그는 어려운 음악이론들을 정리해 선배들 앞에서 발표하던 학술소모임 활동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았다. 한편 평생 취미로 삼을만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한다. “현대가 된 후에도 아르바이트, 회화 공부, 어학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주력한 그는 지난해 ‘LG 글로벌 챌린저’ 공모전에 응모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군은 “해외든 국내든 방학을 이용해 배낭여행을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어요”라며 새내기들에게 전하는 말도 덧붙였다. 졸업 후 대학에서의 여러가지 경험들을 기반 삼아 언론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김형환 군. 대학생활의 첫 단추를 알찬 경험들로 잘 끼운 그이기에 사회 초년생들을 준비하는 모습 역시 자신감 넘쳐 보인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메아리

양심 vs 악의

▲또다시 정부 고위급 간부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귀국 후 장기간 해외이주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아들의 병역 기피에 악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사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악의가 없고 그의 능력에 비춰볼 때 결정적 흠이 되지 않는다”며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병역거부 확산 막아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방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달 10일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교에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징병제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병역거부 운동은 허용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에 단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찬반 토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선거 공동 정책으로 입안할 것을 선언하고,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등이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 발송은 이러한 논의를 사전에 막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국방의 의무’로 짓밟으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사안을 국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해 결사항전 행동이란 지적도 있다.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 기피 의혹이 법적으로 용서(?)되고 있다. 새 정부가 양심수 사면 문제와 함께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밝

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나 혼자 어떻게든 군복무를 받지 않겠다’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요구하며 제도적 수정을 주장하고 있어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차별화 된 것 같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에 기반한 권리이다. 당연히 ‘악의’가 있을 리 전무하다. 조소길 대학부장 chof55@dongguk.edu